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2018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성료

순천의 맛과 멋이 한껏 빠질 수 있는 2018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순천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성료됐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날짜별 테마가 있는 '마싯데이(day)!' -고들빼기day(9.7.), 국밥day(9.8.), 구구day(9.9.) -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퓨전 양상을 DJ와 백댄싱어즈의 팝페라 공연과 VR ART 퍼포먼스로 개막식이 7일 금요일 광주은행 앞 주무대에서 화려하게 열리고 개막 행사로 순천시장과 시민이 함께 푸드아트 페스티벌과 순천시에 대해 허물없는 토크쇼가 진행됐다.

개막 축하공연은 인기 여성디바 디비치가 출연하고, DJ 댄스파티로 전 연령대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려져 있다. DJ 댄스파티는 행사기간 내내 저녁 9시

날짜별 테마가 있는 '마싯데이' 운영해 방문객에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부터 10까지 열려 축제를 신나게 마무리 하였다.

푸드로드(중앙로)에서는 닭구이와 국밥 등 7곳의 권역별 음식과 전 문가의 심사와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주전부리 음식 40종을 맛보면서 BBQ존을 운영해 도심 속 캠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프와 함께하는 시민 요리교실과 음식체험존, 글로벌음식존도 운영해 이색적인 맛을 선보였다.

아트로드(문화의거리)에서는 전국 예술가가 참여한 아트마켓(30팀)과 아트체험(13팀), 정원마켓(15팀)이 운영됐다. 이외에도 한옥골방 웹툰체험존, 청소년수련관 에어바운스

볼터, VR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온가족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또한, 특산물판매존에서는 남해안 인근 8개 도시와 마을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 20여개 부스가 운영되어 다가오는 추석맞이로도 안성맞춤이다.

푸드아트 페스티벌 기간 중앙로 일원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시는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지와 축제장간 셔틀서비스를 15분 간격으로 3개 코스를 운영하여 남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등 임시 무료주차장 5개소를 확보했다. 자세한 코스 및 탑승 시간은 푸드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c-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맛과 멋의 향연인 2018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에 많은 시민과 함께하여 더 새로운 축제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8일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테마열차를 운행하고 이번 테마열차는 500명이 넘는 철도관광객이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연천에서 출발하여 청량리, 수원을 경유하여 축제장을 방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관광객이 O-train, V-train과 같이 대표적인 관광열차인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이용하여 색다른 추억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축제기간동안 일반열차 방문객도 천명이 넘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도시민 생활권 둘레길 정비 나서

마로산·국사봉 등 3개소 원로·백계산 정비 추진

광양시는 여가시간 증대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맞춰 도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권 둘레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건강과 힐링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둘레길 위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양읍 마로산과 옥곡면 국사봉, 광영동 금영공원~와우생태공원 등 3개소의 둘레길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해당 구간의 급경사지에 침목계단·돌계단을 설치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요철이 심한 구간은 노면을 정비했으며, 비온 뒤 질척이는 길에는 아자메트를 설치했다.

또 등산지도와 이정표, 산행 후 신발받지 제거를 위한 먼지떨이기 등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했다.

특히 4ha 정도의 울창한 편백숲이 조성된 옥곡면 국사봉 둘레길에는 피톤치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완만하게 길을 조성했다.

이번 둘레길 정비로 등산객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기쁘다.", "자주 찾을 수 있는 멋진 숲길이 가까이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옥곡면 추산리 백계산 둘레길을, 내년에는 구룡산 둘레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원 산림소독과장은 "시는 지난해 서산, 가야산에 이어 올해는 광양읍 마로산 등 연차별로 생활권 둘레길 정비를 추진해 가고 있다"며 "등산객 분출에서도 산책로 조성 방지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정해진 등산로만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장내기생충퇴치사업 우수기관 표창



보성군은 지난 6일~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부에서 주최한 2018년 장내기생충퇴치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장내기생충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

군은 2006년부터 매년 사업에 참여해 민물고기 생식으로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이 우려되는 보성강 및 주암호 등 수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15,508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1,053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14%에 달했던 기생충 양성률이

2017년 4.1%에서 2018년에는 2.6%로 크게 감소하였다.

군 관계자는 "양성자의 경우 대부분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흡충은 및 기생충 감염은 담관 내 결석과 함께 담관암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물고기 생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성군은 퇴치수준인 1% 이하 감염률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개점 휴업' 완도군의회와 군의장

완도군의회가 존재감 없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지방선거 후 원이 구성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지만, 군의회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표명 없이 수수방관 하는 것이다.

완도군에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 신지.고곡면의 돈사 인허가 때문이다.

돈사가 들어설 경우 완도군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라 생존권과 관계되는 주민들은 지난 여름부터 집회현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완도군의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다.

민심이 들끓고 있어도 완도군 행정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하는 것인지, 완도군의 거수기로 전락했는지 묵묵부답이다.

군의회가 완도군을 잘 감독하고 주민들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군민들은 완도군의회 의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완도군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군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군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완도군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완도=김광수 기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5개 마을 선정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분야에 5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로는 광양읍 본정마을, 옥룡면 남정마을, 갈곡마을, 진상면 삼정마을, 진월면 대리마을로 2년간 국비 70%를 포함한 각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문화와 복지, 경관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태보전을 통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경쟁력을 갖춘 풍요

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모 신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지역주민과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농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횡단보도 노란발자국 부착

어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운전자 경각심 높여



순천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을 부착한다.

노란발자국은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부착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다.

시에서는 지난 6일 동명초등학

교 2학년 1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 학부모 등 50여명과 함께 노란발자국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8개 초등학교에 추가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안전리더를 활용해 찾아가는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 다양한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노란발자국 설치 확대와 함께 비타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 세이프존 조성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지문번호서)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수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목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